

# 전북 건설인 4명, '건설의 날' 정부포상 영예

### 삼화건설사 윤방섭 대표, 산업포장... 송산건설 김철빈·리드 윤일남·승화 노정철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전북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4명이 '2026년 건설의 날'을 맞아 정부 포상을 수상하며 지역 건설산업의 위상을 높였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의 날' 기념 행사에서 (주)삼화건설사 윤방섭 대표가 산업포장을, (주)송산건설 김철빈 대표와 (주)리드 윤일남 대표, (주)승화 노정철 대표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산업포장을 받은 윤방섭 대표는 49년 동안 각종 국책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국가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한 것은 물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과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건설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철빈 대표는 성실한 시공과 뛰어난 현장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

성화와 건설 안전, 품질 향상,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윤일남 대표는 성실시공과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 발전과 협력업체 상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정철 대표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가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했으며, 꾸준한 사회공헌과 나눔 활동을 실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전북자치도회 소속 회원사 대표들이 산업포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은 전북 건설인의 위상을 전국에 알린 뜻깊은 성과"라며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도민과 성장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쌀가공식품·우리술전국무대도전

### 전북농협,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 참가업체 모집

전북농협이 지역의 우수한 쌀 가공식품과 우리술을 전국에 알리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2026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 참가업체 모집'에 나섰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우리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쌀 가공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7일까지 전북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2026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가 주최하는 이번 품평회는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쌀 가공식품과 우리술을 발굴해 유통망 확대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모집 분야는 모두 7개 부문이다. 쌀 가공식품은 조리식품, 비조리식품, 농협 시판식품 등 3개 부문이

며, 우리술은 저도발효주, 고도발효주, 약·청주, 증류주 등 4개 부문으로 나뉜다.

참가 대상은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이다. 쌀 가공식품은 국산 쌀과 농산물의 합계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우리술은 국산 쌀과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제품이어야 한다. 업체당 부문별 최대 2개 제품까지 출품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8월 7일까지 K-라이스페스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견본품을 접수하며, 전문가와 소비자, 농업 MD 등이 참여하는 1~3차 평가와 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

품평회에서는 총 28개 우수제품을 선정해 모두 2억4,5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오상근 기자

## 전북 농수산물식품, 수도권 소비자 사로잡았다

### 팔도밥상페어 28개 기업 참여 4일간 현장 매출 3억원 달성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팔도밥상페어 2026'에 참가해 전북 농수산물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약 3억원의 현장 판매 실적을 거뒀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수도권 최대 식품박람회인 '팔도밥상페어 2026'에 참가해 전북 농수산물식품의 경쟁력을 입증하며 판로 확대에 청신호를 쫓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팔도밥상페어 2026'에 참가해 전북 농수산물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약 3억원의 현장 판매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팔도밥상페어 2026'은 수도권 소비자와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내 대표 식품박람회다. 바이오진흥원은 도내 우수 농·수산물 및 전통식품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을 증진하고 수도권 유통망 진출을 확대하

기 위해 공동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농생명 분야 대표 기업 10개사, 해양수산 기업 10개사, 전통 및 농식품 기업 8개사 등 모두 28개 기업이 참가했다. 참가 기업들은 전북을 대표하는 다양한 농수산물

을 선보이며 수도권 소비자와 유통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농생명 분야 대표기업들은 유기농 들깨가루를 비롯해 간편식과 국수, 한우 편육, 카라멜과 땅콩버터, 누룽지 스낵, HMR 추어탕, 닭갈비와 곱창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했다. 현장 시식과 시음 행사, 소비자 반응 조사도 함께 진행해 제품 경쟁력을 확인하고 유통 바이어들과 온·오프라인 입점 및 납품 가능성을 협의했다.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한 10개 기업은 정갈류와 반건조 수산물, 김부각, 냉동수산물, 전북 죽 등 전북 해역의 특색을 살린 제품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통식품 및 농식품기업 8개사는 '전북미식 삼시세끼'를 주제로 한 프리미엄 홍보관을 운영했다. 국수류와 물엿, 김부각, 발효식품, 액젓 등을 감각적으로 전시해 전북 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상근 기자

## 전북테크노파크, 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 참여기업 2차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 정읍시,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에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오는 7월 21일까지 도내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과 혁신시제품 지정, 공공조달 연계, 민간투자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북형 기업성장 지원사업이다.

이번 2차 모집은 총 3억4천만원 규모의 잔여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된다. 일반트랙 2유형(익산시·정읍시), 스케일업 트랙, 일반트랙 1유형 순으로 우선 선정하며, 선정 기업에는 최대 6천만원의 실증비를 지원한다. 일반트랙 1유형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업은 지원금의 20%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참여기업은 테스트베드형, 공공수요형, 기업제안형 가운데 사업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북개발공사 건설현장 등 공공 테스트베드와 순창군 공공수요 과제, 기업이 제안한 공공기관 현장 등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성능과 활용성을 직접 검증받을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수력원자력, AI 활용 발전설비 안전성 강화 '맞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발전설비 안전성 강화와 에너지 분야 기술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9일 서울 중구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안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희천)과 '발전설비 안전성 확보 및 에너지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화영 한국전기안



전공사 사장과 김성주 기술이사, 김희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3명이 참석해 발전설비

의 안전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전력수요 증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고 발전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발전설비 안전성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협력을 비롯해 양수발전소의 정기 준공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해외 원

전사업 추진을 위한 전기안전 기술지원 및 자문, 친환경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기술 교류와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인공지능(AI)을 안전관리와 발전설비 진단기술에 적극 적용하고, 축적된 발전설비 검사 역량을 양수발전과 해외 원전사업, 친환경에너지 분야까지 확대해 미래 에너지 산업의 안전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은행, 연말까지 JB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고객들의 결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JB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북은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JB신용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최대 3개월 전액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JB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세금 납부는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병

원(동물병원 포함), 학원(운전학원 포함), 대학등록금, 순해보험 등 주요 11개 생활 밀착 업종에서 2~3개월 전액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4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는 부분 무이자 할부가 적용된다. 4~9개월 할부를 이용할 경우 첫 회차 할부수수료만 고객이 부담하면 되며, 10~12개월 할부는 1~2회차 할부수수료만 부담하고 나머지 회차의 수수료는 면제된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